

나주시, 학교·학원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개학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장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종사자가 위생·안전관리 홍보물을 확인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가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와 학원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및 섭취할 수 있도록 업소별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조리, 보관, 진열, 판매 여부를 비롯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준수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판매금지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등 식품위생과 관련한 기본 관리사항도 함께 살폈다.

나주시는 점검과 함께 업소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위생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식품 취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시는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안내를 병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정원 활용 교육 확대

화순군, 9월 재산세 83억 4,600만원 부과

담양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군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원교육을 확대하고, 2027년 남도정원비엔날레에 대비한 정원해설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국립정원문화원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원전문가 양성과정 및 실습정원 조성 ▲학교 교과과정 연계 정원교육 ▲정원해설가 양성과정 등으로 구성해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

먼저 정원에 관심 있는 군민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9회, 62시간의 '정원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원교육을 통해 군민과 학생들의 정원문화 이해를 높이고, 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991건, 83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공통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노란우산으로 생명존중 메시지 전해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120여 명 민·관 합동 가두 캠페인 펼쳐



영광군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존중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동시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생명은 함께 지킨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출정식 이후 참여자들은 서로를 살피고 보호하는 '생명존중의 우산'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영광터미널까지 약 900m 구간을 함께 걸으며 만든 노란 물결은 거리 곳곳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행사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해 생명존중 메시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펼친 노란우산의 물결이 영광 곳곳에 희망의 물결로 이어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군민 누구나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에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하반기 불용 임대농기계 '공개 매각'

상반기 이어 두 번째... 농용굴착기 등 21일 경쟁입찰

장성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해 온 임대농기계 가운데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기계를 경쟁입찰로 매각한다.

군은 상반기에도 동력파종기 등 17종 30대를 공개 매각에 부처 22대를 낙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반기 매각 대상은 농용굴착기, 보행관리기, 동력분무기, 공탈곡기 등 7종 22대다. 군은 이달 21일까지 공고기간을 갖고 21일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현장 경매를 열 계획이다.

경매에 부칠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본소에서 직접 볼 수 있다. 노후화, 고장 등의 사유로 불용 결정된 농기계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상태를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록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입찰 당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한다. 품목별로 제시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최



장성군이 불용 농기계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계약 후 매각 대금을 내면 기기를 인수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하고, 유휴 공공자산도 효율적으로 처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입찰 전 농기계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